

# 이동공부방 겨울방학 특강 열기 후끈

## 이동면청소년지도위원회 100만원 지원 역사문화체험 여행도



이동공부방 겨울특강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역사문화체험의 한 장면

이동 공부방(이동초 교사 김정진)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수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수학 기초 학습반과, 6학년 학생들을 위한 반편성 고사반, 컴퓨터 기초반, 중학교 1~2학년들을 위한 중학 수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로는 이동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정진 교사와 이동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차영환 교사 그리고 올해 단국대 수학과에 합격한 유승운 군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지도하고 있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이동공부방은 매년 역사문화체험을 특강 중에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월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동면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실시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첫째 날 중추의 중원고구려비, 탄금대, 영주 부석사 둘째 날 포항제철 견학, 문무대왕 수중릉, 현대중공업 견학을 하고, 셋째 날 해운대, 태종대, 자갈치 시장, 양산 풍도사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특강프로그램

특강명	대상	인원	기간	시간	강사	수강료
반편성 고사	초등 6	10명	1.2~2.1	19:30~20:30	김정진(이동초 교사)	무료
수학기초	초등 5-6	10명	1.2~2.1	11:00~12:00	김정진(이동초 교사) 차영환(이동초교사)	
컴퓨터기초 (엑셀, 파워)	초등 4-6	12명	1.7~2.1	09:30~10:30	차영환(이동초 교사)	
중학수학	중1-2	10명	1.7~2.1	15:00~16:00	유승운(단국대학교교수)	

# 정영자 전임회장 연임 2년 임기

## 포천시 보육시설연합회 총회 개최

포천시는 1월9일 여성회관에서 보육시설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선출과 활동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2007년 보육인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정영자 전임회장이 연임되어 앞으로 2년간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평가인증을 받은 2개 시설(포마천국, 태봉)에 인증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포천시 보육시설연합회는 그동안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교재교구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교사들의 동화구연대회를 통해 보육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전체종사자의 보육에 임하는 방법론 등을 위해 매년 원장교사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다.

특히 2006년부터 “동그마리 속에 행복을” 프로젝트사업으로 관내 68개 보육시설 아동들의 동전모으기 운동을 펼쳐 2006년에는 굿네이버스에 전달하여 학부모 성교육 및 아동학대교육을 실시했다.

또 2007년에는 8백여만을 모금하여 굿네이버스에 2백만원을 전달하고 우리지역 보육시설 아동 중 어렵게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해 7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였으며 이제 막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모범청소년들(20명)의 교육을 지원한다.

정영자 회장(가산어린이집)은 “회원모두가 하나되어 멋진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당부하며 포천시보육시설연합회의 멋진 발걸이 한해동안 수놓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1월9일 여성회관에서 보육시설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선출과 활동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 《 함께 공부해요 》

## 심술지요(心術之要) ④6

樂記에曰 君子姦聲亂色을 不留聰明하며 淫樂惑禮를 不接心術 하며 情慢邪之氣를 不設於身體하여 使耳目鼻口와 心知百體로 皆由順正 하여 以行其義 니라.

악기에 말하기를 “군자는 간사한 소리와 음란한 빛을 귀와 눈에 두지 않고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절을 마음에 접하지 않으며 태만하고 사벽한 기운을 몸에 지니지 않아서 귀·눈·코·입·마음과 몸으로 하여금 모두 순정에 따르게 하여 그 바른 것을 행하게 한다.” 하였다. 이 글에서는 외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부정한 생각의 싹튼을 막아서 바른 도리를 행할 것을 강조했다.



양주승  
본지 사무원회고



### 특후감



김연수  
학생영양가사·영양학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해준 책이다.

미하일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서 사는게 아니라 사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정주교 사랑을 주며 베풀며 살아가야하는 사물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비판적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라크 전쟁... 사회와 사람간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 동물들도 서로 도우며 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사는 것은 너무 나약한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사랑이 있지 않은가? 이 책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 주고 싶다.

저자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 이곡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생겼어요~!!



이곡초등학교 앞에 생긴 인도  
놀러 갈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를 만들어 주신 포천시장감 감사합니다.  
김진호 학생영양가사(이곡초 6년)

이곡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생겼습니다. 인도가 만들어진 시기는 2007년8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솔개(이곡리)까지 인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도가 생겨서 학교에서 한 정거장에 사는 친구들과 동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를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통리까지 안전한 인도가 만들어져 친구 집에도 걸어서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수위셀 8. < 조 언 > : 네 자리 수의 연도나 호일 번호,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군사용 시간은 통상 두 자리씩 나누어서 말한다. 그러나, 2000 연도 이상은 그렇지 않고, 국제계약서나 수표금액 등은 풀어서 쓰고 있다.

\* < 보기 > : (1)  
\*1950년 : 이어나인틴인 휘프 (Year nineteen fifty.)  
\*6월 25일 : 준튀니 휘프 (June twenty fifth.)  
\*1888년 : 에이티인 에이리에이 (Eighteen eighty eight.)  
\*2003년 : 투디우엔 쓰루 (Two thousand three.)  
\*9022호실 : 1) 룸나인오 더블투 (Room nine O double two.)  
2) 룸나이니 튀니투 (Room ninety twenty two.)  
3) 룸나인제로 투투 (Room nine zero two two.)  
\*511호실 : 1) 룸화이브 원원 (Room five one one.)  
2) 룸화이브 일레븐 (Room five eleven.)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cooyoon@nate.com)

# 교사는 思考의 폭을 넓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이호연  
영양조리학자·영양학

오래 전에 필자는 紙面을 통해 당황스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창의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 교사가 포함된다니 지적이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反面教師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단이 창의적인 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환경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지나친 비평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교사는 다양한 생육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자의 건 타의 건 간에 교사의 부적절한 교육적인 행위로 부정적인 개념이 학생에게 형성된다면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교사는 思考의 폭을 넓히는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교단 현장에서 우리는 흔히 IQ의 개념으로 학생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똑똑하다, 영리하다는 의미의 지능은 언어영역과 수리·논리 영역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능지수(IQ)는 이 두 영역에서만 측정하여 단일 차원의 점수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능이 언어영역과 수리·논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영역까지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버드대학교의 Howard Gardner 교수는 다중지능이론을 제안하면서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영리하

다, 영리하지 않다고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 동안 무시되었던 신체동작지능과 음악 지능도 같은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명훈처럼 지휘를 잘하거나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잘하는 사람도 자신의 분야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IQ로 측정해서 영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그런 사람들을 재능이 있다고 했지 지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Gardner는 그런 것들도 지능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IQ적 사고(思考)보다는 한층 폭넓은 사고(思考)를 할 수 있는 기질이 마련된다.

어떤 것은 지능으로 간주되고 어떤 것은 지능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8 가지 기준을 통해 구별하는 것이 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MI: Multiple Intelligence)이다. 언어지능(Linguistics Intelligence): 말과 글이라는 상징체계에 대한 소견과 적성이 뛰어난 능력,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상징체계에 민감하고 창조하는 능력,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잘 이해하고 창조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능력,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도형 및 입체세계 등의 상징체계에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타인의 기분이나 동기바탕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기 자신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예

민하고 유능하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능력이다.

그런데 최근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Albert-Laszlo Barabasi) 미(美)노스이스턴대 물리학과 교수는 네트워크 이론가로서 '네트워크'의 비밀을 파헤쳐 세계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란 성장하는 조직을 보면, 반드시 연결이 물리는 '허브'가 존재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평균값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을 것 같은 것들의 관념을 부수버린 그의 발견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경제, 인터넷, 세포, 질병까지 바로 이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허브'란 많은 구상인자들과 연결돼 있는 인자들을 일컫는다.

미릴린 먼로는 '왕자와 무희(The Prince and the Showgirl · 1957년 작)'에 로렌스 올리비에란 배우와 함께 출연했다. 올리비에는 1981년, 남궁원과 함께 '오! 인턴'이란 작품을 함께 한 사이다. 남궁원과 친구는 '황홀(1974년 작)'이란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다. 지구 반대편의 두 배우가, 올리비에와 남궁원을 거처면 생사라는 벽을 훌쩍 뛰어 넘어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트워크 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로 사고하고, 모든 네트워크에는 허브가 있는데 이 허브를 분석해 보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네트워크적 사고(思考)도 교사의 사고(思考)의 폭을 넓히는 좋은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본다.

# 자유기고

## 부모님의 옛 추억을 떠올리는 동장군 축제



권정아  
학생영양가사·영양학

나는 동장군 축제에 가려고 아침에 준비했다. 일찍 밥 먹고 서둘러 출발했다. 처음에는 차가 막히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막히기 시작했다. 다들 동장군 축제에 가려고 이렇게 차가 막히는 것 같았다. 차가 막혀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낭비하고 백운계곡에 도착했다.

먼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열음이다. 그래서 열음을 차안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었다. 너무나도 뿌듯했다. 그 열음이 얼마나 신기하든지 하늘을 뚫을 것 같이 하늘을 향해 열음이 일어 있었다. 처음에는 저것을 어떻게 열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언니에게 물어봤는데 언니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가족은 동장군 축제에 가서 팬이치기를 제일 먼저 봤다. 엄마와 아빠는 옛날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언니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도 팬이치기를 하면서 놀고 싶었던 했지만 그 날이 너무 추웠고 팬이치기를 하는데는 돈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썰매를 타기로 하고 썰매 타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 주변엔 큰 건

물이 하나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음식점이 있었다. 우리는 그 음식점에서 오뎬과 송어, 해물과전을 먹었다. 언니와 나는 오뎬 국물을 놓고 말싸움을 했다. 언니가 국물을 거의 다 먹어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고 그 런 것일까?

결국엔 아빠가 오뎬 국물을 더 가져다 주었다. 아무튼 정말 맛있었다. 아, 그런데 그 곳에 신기한 음식이 많이 있었다. 바로 추억의 도시락, 엄마와 아빠가 옛날 학창시절에 먹었던 도시락이라고 했다. 우리가 직접 먹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알려주었다.

우리 옆에서 추억의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지 못해서 엄마, 아빠께 물어 보는데 밑에는 김치, 중간에는 밥, 위에는 조그만 계란후라이가 얹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가 주문해서 먹지는 않았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다 먹고 열을 앞에서 언니와 내가 나눠서 사진을 찍고 나서, 엄마와 아빠도 찍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곤충들을 보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보슬하늘소였다. 얼마나 희안하게 생겼는지 공금했는데 오늘을 통해서 이

렇게 내 눈으로 직접 봐서 좋았다.

또 제일 징그러운 애벌레도 보고 물리던 죽는다는 전갈도 봤다. 내가 알기 어려웠던 징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예쁜 곤충들이 많았다. 그래서 한 10분쯤 구경을 하다가 큰 열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사진을 찍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와 나는 행복함 표정을 지었다. 지금과 나서 생각하기에도 정말 좋았고 행복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의 배터리가 닳았다. 그래서 차가 더 막히기 전에 백운계곡을 떠났다.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하다. 겨울이라는 그 사계절 때문에 신나는 동장군 축제도 열고 추억으로 팬이치기도 하고, 썰매도 타고... 우리나라에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어서 남녀노소 즐겁게 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내년에도 동장군축제나 다른 축제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이 아닌 포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동장군 축제에 가보았으면 좋겠다.

# 심리상담 ③ “이제 언니 또는 형임을 알려주세요”

동생을 본 후 행동이 어리러진 아 동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할까요?

A 사람을 받고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동생을 본 후 가족들의 사랑이 온전치 않아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이는 알게 됩니다. 특히 첫째아이의 동생은 본 경우라면 예를 들어 밤을 먹는 아이가 분유 먹기, 바지에 소변보기 등 동생이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고자하는 행동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동생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에게 부모님은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동생을 한번 안아주셨

다면 첫째아이도 한번 안아주시고, 동생에게 뽀뽀를 해주셨다면 첫째아이에게도 뽀뽀해 주세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첫째아이는 여전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첫째아이도 아직은 부모님의 손을 빌어야 하는 아동임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은 동생을 본 후 첫째아이에게 모든 일을 알아서 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동생이 생긴 했지만 여전히 첫째아이도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 첫째아이에게 이제 언니 또는 형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생은 첫째아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분유를 타러 주방에 갈 때 첫째아이에게 'OO아 엄마 주방에서

동생분유 가져올게요 그런데 엄마가 주방에 갈 동안 동생이 울 수 있어 동생은 누워만 있어서 엄마가 주방에 갈 걸 몰라. 그러나 내가 동생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울지 않게 돌봐줘요'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저귀나 분유통 가져오기 등 동생을 돌볼데 대한 간단한 심부름을 시켜주세요. 이것을 통해 첫째아이는 동생이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생은 돌봐 주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우리 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학생영양가사